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1년 3월 10일(수) 14:30
배포일시	2021년 3월 9일(화) 09:00
배포부서	KDI 홍보팀(044-550-4030, press@kdi.re.kr)
담당자	장혁순 대외협력실장 (044-550-4031, hschang@kdi.re.kr)

KDI 새로운 50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플랫폼’ 될 것

- ▶ 50년의 회고와 미래 비전 선포
- ▶ 국민과 함께하는 랜선 기념행사 개최

□ KDI는 3월 10일 오후 2시 개원 50주년 기념식을 개최, 최정표 KDI 원장의 기념사에 이어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축사로 시작된 행사는 비전 선포식과 국민과 함께하는 랜선 기념식 순으로 진행

○ 최정표 KDI 원장은 기념사에서 “코로나 팬데믹, 글로벌 경제협력 체계 재편, 디지털 전환, 저출산·고령화 등 대한민국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새로운 시대는 KDI에게 새로운 역할을 요구한다”라며,

- “KDI는 앞으로도 연구의 엄격함과 수월성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겠다. 또한 ‘모든 사회구성원이 더불어 행복해지는 삶의 질 구현을 목표로 역동적인 경제 운영과 포용적 사회 구성을 위한 해법 제시에 매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힘.

- 축사에 나선 정세균 국무총리는 개원 50주년을 축하하고 “과거 50년간 KDI가 ‘번영’을 향한 경제 설계의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격차를 없애고 국민 모두가 잘 사는 ‘포용’을 향한 경제설계를 위해 매진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KDI의 지난 50년을 회고해 보면, 1971년 설립 이래 한국경제의 비약적인 발전과 동행해왔다”라고 말하며 “KDI가 지난 50년간 한국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듯이 다시 한 번 집단지성을 모아 우리 경제·사회 혁신의 구심점 역할을 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
-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세계경제의 위기적 징후와 팬데믹으로 인한 기존 질서의 해체는 KDI로 하여금 신문명 시대를 여는 새로운 소명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KDI는 지구 공동체와 대한민국의 미래백년을 전망하는 새로운 지향, 새로운 구조, 새로운 전략을 구상해 가야 한다”고 제언
-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KDI는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우리 경제가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실천적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일구는데 공헌을 해왔다”라고 말하며 “다가올 50년은 우리가 직면해 있는 여러 이슈들에 대한 창의적인 해법을 모색 해주길 바란다”라고 강조
- 데이비드 콜* 前 미국 하버드국제개발연구소 이코노미스트는 “KDI 설립 당시와 이후 첫 10년 동안 내가 함께했다는 사실은 내 삶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으로 남아있다. 현재 KDI는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정책연구기관으로 성장했다. 앞으로도 KDI가 역동적이고 모범적인 국가인 한국의 미래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말함.
* 제2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 입안에 참여, KDI 설립 초기 외국인 고문으로 자문 활동

□ 대한민국 경제와 함께 성장해온 KDI 50년

- KDI는 우리 실정에 맞는 경제계획과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자 1971년 3월 설립된 사회과학분야 최초의 싱크탱크로, 지난 50여 년간 거시경제, 금융, 재정, 복지, 노동, 산업, 무역, 북한경제 등 경제·사회 전반의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합리적 정책 수립과 제도 개혁에 기여
 - 정책연구 이외에도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시대적 요구에 적극 부응하여 경제교육 및 경제정책정보 제공, 주요 재정사업 평가와 민간투자 지원사업, 차세대 글로벌 리더 양성 및 개발도상국과의 경제발전경험 공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로 역할과 기능이 확대됨.
- 미국의 원조자금으로 설립된 KDI는 12명의 경제학자로 출발하여 한국 경제·사회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현재 500여 명 규모의 종합정책연구기관으로 성장하였음.
 - 지난 50년 동안 관계, 정계, 학계는 물론 민간 부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활약하고 있는 인재를 배출해 인재 양성 산실로서의 역할도 담당
- 2013년 연구원 이전과 함께 세종시대를 개막한 KDI는 한국의 고도성장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던 것에서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기술혁명 대응과 산업경쟁력 강화, 인구구조 변화에의 대응이라는 어젠다를 선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국가경제에 필요한 중장기 방향 설정
 - 더불어 OECD, World Bank, IMF 등의 국제기구 및 Brookings 등 세계 유수의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한국의 경제발전경험을 국제 사회와 공유하는 KSP사업을 통해 글로벌 싱크탱크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확립
- 특히 KDI는 지난 1월 '2020년 글로벌 싱크탱크 평가'에서 전 세계 11,175개 연구기관 중 16위, 미국을 제외한 순위에서는 5위를 차지하며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싱크탱크로 자리매김

- 2013년부터 6년 연속 1위였던 '아시아 국가 톱 싱크탱크'와 2016년부터 3년 연속 1위를 기록한 '국제개발' 부문은 명예의 전당에 등재되는 등 14개 주요 부문에서 최상위권에 이름을 올림.

□ '번영을 향한 경제설계'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플랫폼'으로 KDI 미래 비전 선포

- 강동수 KDI 부원장은 “KDI는 지난 50년간 한국경제의 번영을 위한 해법을 제시하는 지식집단이였다. 앞으로 KDI는 '역동적인 경제와 포용적인 사회'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해법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라고 밝히고 “지속가능한 체제를 위해 모든 사회구성원이 상생할 수 있는, 자본주의 패러다임 전환도 진지하게 고민하겠다”며 새로운 미래 비전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플랫폼'을 선포
- 이를 위해 첫째, 국가적 난제들에 대한 해법을 찾아가면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설계
 - 대한민국 경제·사회 시스템의 위험과 위기에 대해서 국민과 정부에게 미리 정확하게 알려 대응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포용과 지속가능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전략을 연구
- 둘째, 국가적 난제 해결은 KDI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만큼 대한민국 정책연구 생태계의 많은 기관·전문가와 함께 도모
 - 기관·전문가와의 협력을 위한 윈윈 인센티브를 기획하고, 지식생태계의 전 과정을 주도하는 정책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 셋째, 국가적 난제 해결 경험을 세계와 공유하며 글로벌 이슈를 선점해 세계를 선도

- 국가적 난제를 해결한 지식자본을 글로벌과 공유해 국제사회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며 21세기형 발전경제학의 글로벌 메카로 자리매김
- KDI는 비전 달성을 위해 '일의 혁신', '조직·거버넌스의 혁신', '사람의 혁신' 등 3대 분야 8대 전략 과제를 마련하고 이행 로드맵을 완성해 갈 것

□ 국민과 함께 하는 랜선 기념식 열어

- 한편, KDI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50주년 기념식을 대규모 행사가 아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랜선 기념식'으로 개최하고, 국민과 함께 '개원 5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축하함.
 - 기념식은 줌(ZOOM)과 KDI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되며, 오프닝 영상을 통해 싱크탱크의 역할과 지난 50년의 성과를 소개
- 특히 KDI는 개원 50주년을 보다 뜻 깊게 기념하고자 지난해부터 50주년 슬로건·엠블럼·홍보콘텐츠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기념행사를 국민과 함께 준비해왔으며,
 - 이번 기념식에서도 청년들이 홍보한 KDI, 미니 토크콘서트, 랜선 생일 파티 등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하여 행사에 참여한 임직원, 국민 모두가 함께 소통하는 장으로 마련

□ 지나온 50년을 기리고, 다가올 50년을 그리는 '비전홀' 개관

- 한국경제 발전 과정에서 KDI의 역할을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교육·연수 프로그램과의 상호 연계성을 높이고, 국내외 인사 방원 시 세계 속에서 한국 경제의 위상 변화와 발전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기존 역사홍보관을 '비전홀'로 이름과 공간을 새롭게 바꿔 개관

- 3월 8일 열린 비전홀 개관식에는 최정표 KDI 원장을 비롯해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이춘희 세종시장,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김홍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장지상 산업연구원장, 조홍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윤제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박소현 건축공간연구원장,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이 개관 기념 테이프 커팅에 참여
- 비전홀에서는 ‘지식원조를 넘어 한국의 생각을 세계와 나누다’라는 주제로 지난 50년간의 정책자문 결과를 <드로잉 영상>으로 살펴보고, <시대별 연구주제> 변화를 한눈에 조망하며 <생각의 책장>을 통해 축적된 발간물 전체를 볼 수 있음.
 - 또 미디어 콘텐츠 중심의 공간답게 다양한 글로벌 협력 활동들을 세계 지도 위에서 관람객이 터치하면서 체험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구현, 도슨트 관람 뿐 아니라 자유 관람도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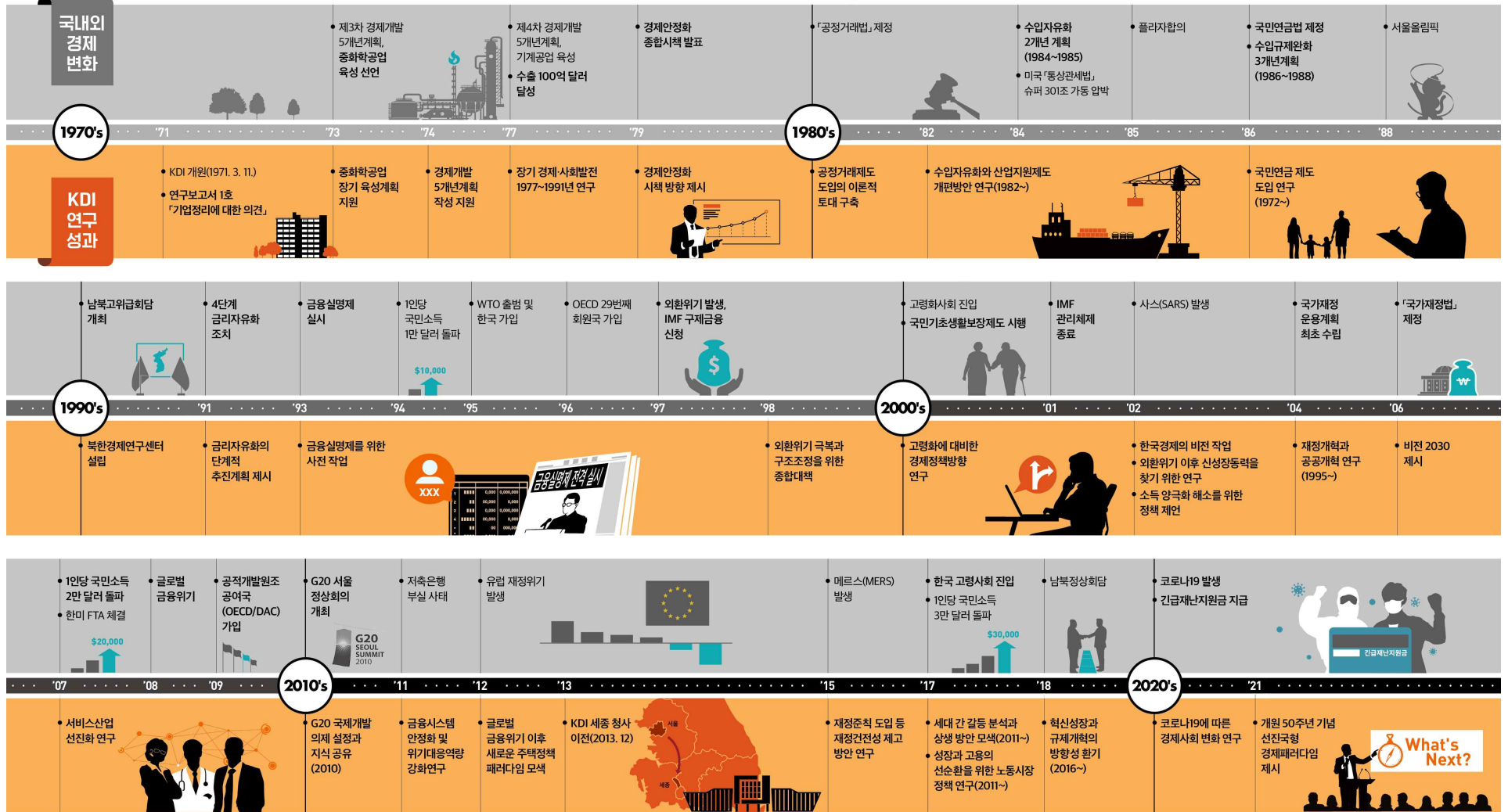
- ❖ **첨부 1. 50주년 기념식 세부 일정**
- ❖ **첨부 2. [인포그래픽] 대한민국 경제와 함께 성장한 KDI 50년**
- ❖ **첨부 3. [인포그래픽] 숫자로 보는 KDI 50년**
- ❖ **별첨 1. KDI 전경 사진**
- ❖ **별첨 2. 기념식 사진(행사 당일 14:30 배포)**

❖ 첨부 1. 50주년 기념식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1부. 기념식	
14:00~14:03	50주년 기념 인트로 영상 상영
14:03~14:07	개회선언 및 국민의례
14:07~14:13	주요 연혁 등 경과보고 임영재 KDI 50주년추진단장
14:13~14:18	기념사 최정표 KDI 원장
14:18~14:30	축 사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데이비드 콜 前 미국 하버드국제개발연구소 이코노미스트
14:30~14:50	비전 선포식 강동수 KDI 연구부원장
2부. 랜선 생일파티 '국민과 함께 찍는 KDI 쉼표(,)'	
14:50~15:40	국민과 함께 하는 랜선 소통
	미니 토크콘서트
	랜선 생일파티

❖ 첨부 2. [인포그래픽] 대한민국 경제와 함께 성장한 KDI 50년

50 대한민국 경제와 함께 성장한 KDI 50년



❖ 첨부 3. [인포그래픽] 숫자로 보는 KDI 50년

